역사비평

2016 봄
역사문제연구소
역사비평

114

특집 조일수호조규와 개항에 대한 다양한 시선

개항을 바라보는 시선의 (불)연속

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?

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—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

화교·화인의 시점에서 본 아시아 속 조선 개항

19세기 '국제법'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(1876)

기획1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비판

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파시즘

'한사군 한반도설'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

오늘날의 낙랑군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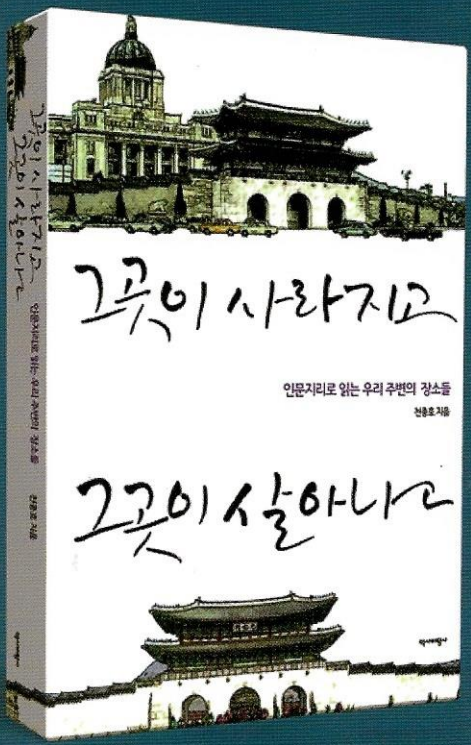
초청논단

'샌더스'와 '코빈' 신드롬 — 지구화시대의 불평등과 제도권을 통한 풀뿌리 저항

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? — '중국몽(中國夢)'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

인도 벵갈, 방글라데시, 미얀마의 내셔널리즘

인간이 생로병사를 겪듯 지역도 **흥망성쇠**를 겪는다.
과거에 번성했던 한 지역이 **쇠락**하기도 하고,
쇠퇴의 길을 걷던 어떤 지역은 새롭게 **발전**한다.



그곳이 사라지고, 그곳이 살아나고

인문지리로 읽는 우리 주변의 장소들

전종호 지음 / 416쪽, 16,500원

1부 : 산, 강, 평야, 해안, 숲, 농어촌 등
우리 국토의 자연과 그 자연을 바탕으로 형성된 마을에 관한 이야기

2부 : 성곽, 왕릉, 향교와 서원, 궁궐, 역사의 현장 등
역사적인 무게와 사연이 깃든 유적과 장소에 관한 이야기

3부 : 공장, 탄광, 항만, 군부대, 옛 사회기반시설 등
산업화 시대와 냉전 시대의 유산이 깃든 장소에 관한 이야기

4부 : 주택, 교통 시설, 학교, 상점, 문화 여가 시설 등
고도성장의 결과로 도시에 나타난 장소에 관한 이야기

★ 2015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당선작

인간은 나고 죽고, 문명은 성쇠한다. 그 자취는 장소와 지역에 고스란히 박힌다.
이 책은 무심하게 지나친 곳과 시설물에서 눈 밝은 지리학자가 읽어낸 우리의 미시사 또는 생활사다. 현장 답사를 통해 풍풍 불은 땅의 사연을 톡톡 건드려 이끌어낸 서사라고나 할까. 무심함, 곧 익숙함은 시간 · 공간적으로 아주 멀거나 가까운 데서 비롯하는데, 지은이는 일상의 느른한 공간이 그 무엇인가 사라지고 살아나는 의미 있는 현장임을 일깨운다.

—〈한겨레〉 2015년 12월 31일 기사 중에서

61
9 771227 362004
ISSN 1227-3627
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0(비전타워 21) 506호
Tel : 02-741-6123 E-mail : yukbi88@naver.com

역사비평사

역사비평 114

2016 봄
역사문제연구소
역사비평사

책머리에

002 궁극적 목표를 상실한 대북정책 | 박태균

특집 조일수호조규와 개항에 대한 다양한 시선

012 개항을 바라보는 시선의 (불)연속 | 박준형
025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? | 김종학
057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—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 | 한승훈
082 화교·화인의 시점에서 본 아시아 속 조선 개항 | 이시카와 료타
113 19세기 '국제법'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(1876) | 안종철

초청논단

137 '샌더스'와 '코빈' 신드롬—지구화시대의 불평등과 제도권을 통한 풀뿌리 저항 | 김만권
165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?—'중국몽(中國夢)'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 | 쉬진위
191 인도 벵갈, 방글라데시, 미얀마의 내셔널리즘 | 신재은

기획1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비판

218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파시즘 | 기경량
238 '한사군 한반도설'은 식민사학의 산물인가 | 위가야
262 오늘날의 낙랑군 연구 | 안정준

특별기고

285 한국사학의 형성과 지배구조—영남대는 누구의 것인가 | 윤지관

발행인 정순구 **편집인** 김성보 **편집자문위원** 강만길, 조동걸, 이이화, 김정기, 서중석
편집주간 박태균
편집위원 김시덕, 김태호, 노관범, 박진빈, 박철현, 백지운, 엄복규, 오제연, 이경구, 이정은
전덕재, 정요근, 천정환, 홍종욱, 후지이 다케시

기획2 분단국의 역사교육: 독일과 한국

306 기획 '분단국의 역사교육: 독일과 한국'에 대하여 | 오제연
312 냉전기 서독 반공교육의 변화와 쟁점
—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교육과 다원주의적 관점 | 유진영
335 통일 후 분단독일의 역사 다시 쓰기와 역사의식의 공유 | 이진일
374 탈냉전시대 한국 통일교육의 딜레마 | 김귀옥

역비논단

408 조선정판사 '위조지폐' 사건의 재검토—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| 임성욱
441 육사의 「청포도」 재해석—'청포도'와 '청포(靑袍)', 그리고 윤세주 | 도진순

서평

476 '근대 일본의 디자이너'와 '한국 침략의 원흉' 사이 | 염복규
(『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』, 한상일, 까치, 2015)
482 문학과 경제로 풀어낸 청일·러일전쟁 | 이형식
(『청일·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』, 하라 아키라, 살림, 2015)
488 메이지의 바깥에서 보는 메이지유신 | 노관범
(『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』, 박훈, 민음사, 2014)
495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넘어서?! | 류준필
(『동아시아는 몇 시인가?』, 미야지마 히로시·배항섭 엮음, 너머북스, 2015)

역사문화비평

503 〈응답하라 1988〉에 나타난 '역사'와 유토피스틱스 | 천정환